**삼하1809 Note**

**Cross check 삼하1425-26**

삼하1425. 그러나 온 이스라엘에서 그의 아름다움에 대해 압살롬과 같이 그렇게 많이 칭송받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의 발 바닥으로부터 그의 머리의 정수리까지 그의 안에 아무런 흠이 없었느니라,

삼하1426. 그리고 그가 그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에(그가 그것을 깎는 것은 매년의 끝에 있었으니, 이는 머리털이 그의 위에서 무거웠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깎으니라), 그가 그의 머리털을 왕의 무게를 좇아, 이백 세겔에 무게를 재니라,